

함께 울고웃으며 사는 화목한 대가정

지난 2월 평양의 모란봉구역 민홍동에 살고있는 특유영예군인 한명일의 부모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영예군인인 아버지와 어머니는 평생을 함께 살아오신 부부입니다. 영예군인인 아버지는 특유영예군인으로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입니다. 어머니는 영예군인으로서 아버지를 잘 보살피고 계신 분입니다. 영예군인인 아버지는 특유영예군인으로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입니다. 어머니는 영예군인으로서 아버지를 잘 보살피고 계신 분입니다.

영예군인인 아버지는 특유영예군인으로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입니다. 어머니는 영예군인으로서 아버지를 잘 보살피고 계신 분입니다. 영예군인인 아버지는 특유영예군인으로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입니다. 어머니는 영예군인으로서 아버지를 잘 보살피고 계신 분입니다.

영예군인인 아버지는 특유영예군인으로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입니다. 어머니는 영예군인으로서 아버지를 잘 보살피고 계신 분입니다. 영예군인인 아버지는 특유영예군인으로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입니다. 어머니는 영예군인으로서 아버지를 잘 보살피고 계신 분입니다.

영예군인인 아버지는 특유영예군인으로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입니다. 어머니는 영예군인으로서 아버지를 잘 보살피고 계신 분입니다. 영예군인인 아버지는 특유영예군인으로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입니다. 어머니는 영예군인으로서 아버지를 잘 보살피고 계신 분입니다.

개화발전하는 민족음악, 사멸되어가는 전통음악

《우리 민족음악이 제일》

《민족의 향취가 넘쳐나는 우리 민족음악이 제일입니다.》 언젠가 취재길에서 만났던 한 민족음악가가 한 말이다. 그때 그는 우리 민족음악의 우수성에 대해 손가락을 꼽아주며 말했다. 민족음악에서 기본은 민요라는 것, 한번 들으면 따라부르고싶은 흥동이 있고 부르거나 민중적곡지와 자부심이 절로 생기는 《아리랑》, 《도라지》, 《양산도》와 같은 민요들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다정다감한 우리 겨레의 민족적정감을 잘 나타내는 민족악기는 또 얼마나 훌륭한가 하면서 가야금 연주까지 해보았다. 공화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우수한 민족음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가야금을 비롯한 민족악기들이 연주될 때 세계적으로 이런 음악은 조선에만 있다고 하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오늘 공화국에서는 《철령아래 사과바다》, 《바다만 풍가》, 《세월이야 가보라지》와 같은 민요풍의 노래들과 민족악기를 위주로 하는 특색있는 음악작품들, 새로운 연주형식이 창조되어 주체음악발전에서 기여하고 있다. 누구나 노래를 불러도 우리 민요를 즐겨 부르고 춤을 추어도 우리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며 조선민족이 제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을 깊이 간직해나가고있는 공화국인민들이다.

《우리 땅에서도 낯선 우리 음악》

공화국에서 우리 민족음악이 제일이라는 목소리가 울릴 때 한쪽편에 서있는 한민족이 살고있는 남조선에서는 어떤 부름이 울리고있는가. 《우리 땅에서도 낯선 우리 음악》, 우리 민족고유의 전통음악이 미국식음악과 서양문화가 혼란된 이색적인 음악으로 퇴색되고있는 현실을 반영한 말이다. 남조선에서 《K팝》(남조선대중음악)을 비롯하여 미



공화국에서 우리 민족의 우수한 음악유산이 활짝 꽃피고 있다.



퇴폐적인 서양음악이 판을 치는 현실을 개탄한 남조선 언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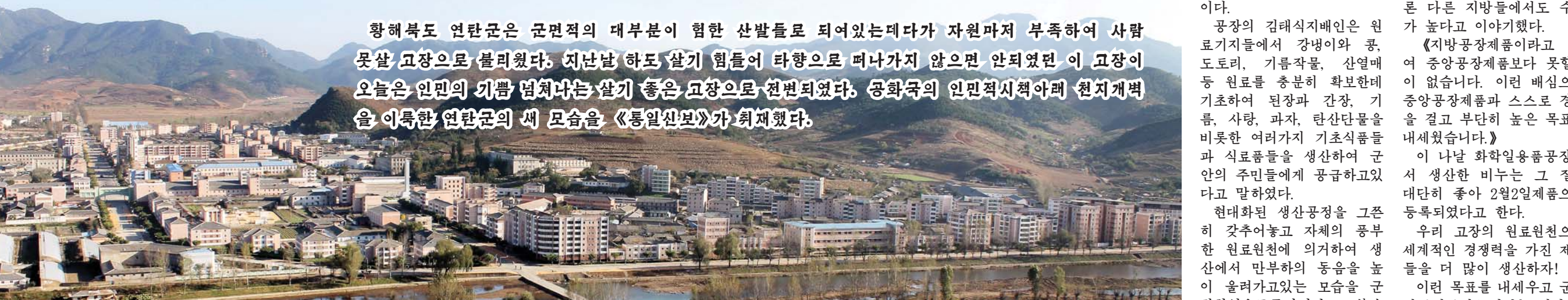
시대에 뒤쳐져 퇴폐적인 서양음악이 판을 치고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음악이 갈수록 조락되고있는 남조선의 현실을 한 언론은 이렇게 지적하였다. ... 한해 대학에서 《국악》 관련 학과를 졸업하는 학생은 약 400명, 그중에서 전공을 살려 취업하는 학생은 10명 남짓. 이것이 바로 우리 《국악》의 현실이다. 지역축제나 음악단체가 많아졌지만 학생들은 대부분 대학졸업장을 가지고 다른 업계에 진출하기 위해 발버둥치고있다. 막고사는 문제보다 어떻게 삶을 풍요롭게 채울것인지 고

에 토를 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이 보통 정서다. 사회적 분위기도 한몫했다. 뿌리깊은 시대주의가 음악에서도 병폐가 됐다. 《국악》을 표면적으로만 계승하

《국악》의 몰락 주도한 시대주의

《국악》의 미래를 걱정하는 음악인들은 격한 비판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전통적양식을 지키면서 동시에 새로운 《국악》의 토대를 마련하지 못한 선배음악인들과 《정부》의 뒤집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

어제날의 《돌모루군》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황해북도 연탄군은 군면적의 대부분이 험한 산밭들로 되어있는데다가 자원마저 부족하여 사람 못살 고장으로 불리었다. 지난날 하도 살기 힘들어 타향으로 떠나가지 않으면 안되었던 이 고장이 오늘은 인민의 기쁨 넘쳐나는 살기 좋은 고장으로 변모하였다. 공화국의 인민적시책아래 원지개혁을 이룩한 연탄군의 새 모습을 《통일신보》가 취재했다.

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전반의 새 모습을 펼친 연탄군은 첫눈에도 정이 들었다. 번듯한 포장도로를 따라 걸으며 읍지구의 전경을 바라보느라니 이 고장 사람들이 하던 말이 떠올랐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해방전 화전민부락이었던 연탄군은 산이 많고 땅이 척박한 궁벽한 고장이었다고 한다. 이 고장에 태를 물었다는 장세조(86살)로인은 《이 고장은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산뿐인데다가 척박하여 누구도 이 고장에 오겠다는 사람도 없었고 다른 고장으로 떠나가기만 했다.》고 추억했다. 그 옛날 돌자랑밖에 할 것이 없어 《돌모루군》이라고 불리었다는 연탄군, 하지만 오늘은 흥하는 고장으로, 황해북도의

가지고오신 음식들을 양수기 운전공들에게 보내주시고 자신께서는 땀뿌로 요기를 하신 가슴뜨거운 이야기도 이곳에 깃들여있다. 연탄군에 새겨진 전설같은 사연들은 인민을 위해 헌신한 자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만든 기념물, 개진된 터전을 닦아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민헌신의 자욱을 길이 전하고있다. 하기에 주체99(2010)년 5월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이 고장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께서서는 앞으로 군을 더 잘 꾸리고 인민생활을 높여 장군님께 기쁨을 드려야 한다고, 그러하면 일꾼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뛰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절세위인들의 위민헌신의 자욱에 떠받들려 연탄군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도시사람들도 감탄하는 문

화후생 및 봉사시설들과 치료에방기관들, 산마다 풀마다 옥실지리는 양떼와 염소떼, 옛날흔적을 찾아볼수 없게 정리된 강하천들, 개진된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생산되는 질 좋은 비누와 기초식품을 비롯한 제품들, 늘어나는 잣나무림, 단나무림, 들배나무림, 들쪽나무림과 더불어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된 산림, 산골짜기마다에 즐비하게 솟아난 살림집들, 일매 지게 포장된 도로들, 자체로

생산한 전기로 만부하로 돌아가는 지방공업공장들... 연탄군사람들에게는 꿈이 많다. 자기 사는 고장을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념원과 리상이 현실로 꽃피어나는 사회주의선경으로, 인민의 락원으로 더 잘 꾸러갈 아름다운 꿈을 안고 애국의 땅방울을 바쳐가고있다. 자기 지방의 잠재력을 발동하여 연탄군에는 식료공장, 화학일용품공장, 종이공장, 직물공장, 버섯공장, 가구생산협동조합을 비롯하여 군의 얼굴이라고 할수 있는 특색있는 제품들을 생산하여 널리 알려진 지방산업공장이 많다. 연탄군 읍에 위치하고있는 군식료공장은 현대화된 생산공정을 갖추고 갖가지 식료품들을 생산하고있는 공장

본시기자 흥분식

본시기자 흥분식

